

“역대 규모 임실N치즈축제 만나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벤치마킹

8~12일 추석 연휴 5일간 개최... 축하공연·불거리·먹거리·즐길거리 풍성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2025 임실N치즈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임실을 일원에서 역대급 규모로 개최된다.

11회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만큼 기존 4일에서 올해는 5일간 개최되며, 맛과 멋, 즐거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맛이 좋고 영양분이 높은 고품질 저지방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숙성치즈와 성인 다이어트와 뼈 건강에 좋은 무가당 요거트 연계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임실치즈의 깊은 풍미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임실N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지털 풍미 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쌀과자 △임실N숙성치즈 굴리기 등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8일 개막 축하공연에는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손태진, 미스트롯3 준우승자 배아현, 국악 트롯 요정 김다연, 실력파 걸그룹 미미르즈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축하 무대를 펼친다.



2025 임실N치즈축제 축하공연 포스터

이러 10일 임실N치즈콘서트에는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민, 트롯 아이돌 김희재, 트롯 요정 전유진, 국민포크 그룹 자전거 탄 풍경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12일 폐막 공연에는 나는 반딧불의 주인공 황기담, 원조 감성 디바 임수정, 차세대 K팝 투키 TROT가 출연해 축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장의 가을 정취는 한층 더 깊어진다.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과 유령형

장미원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밤에는 환상적인 LED 야간 경관 조명이 빛을 더해 잊지 못할 야경을 선사한다.

또한,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안소 한우와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엄마표 향토 음식의 향연도 펼쳐진다. 소머리곰탕과 육개장, 다슬기탕을 비롯해 치즈를 활용한 치즈수수부부미와 치즈떡볶이 등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특색 있는 향토 음식들이 풍성한 먹거리를 책임진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는 평소 할인을 잘 하지 않는 임실N치즈 유제품들을 축제 기간 5일 동안 20% 가격 할인해 판매한다.

심 민 군수는 “축제장을 가득 메운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 경관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치즈축제장에서 국화꽃 향연과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안소 한우도 맛있게 즐기시고, 유령호 출렁다리도 들러서서 아름다리 꽃들도 구경하시면서 천만 송이 임실의 참맛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경남 밀양 찾아 농업 발전 방향·협력 방안 모색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지난달 30일, 자매결연 도시인 경상남도 밀양시를 방문해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 주자인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벤치마킹하고 미래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BCO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더해졌다.

특히 최 시장은 안병구 밀양시장을 만나 환담하면서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이후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관계자들은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하는 경남 농업인력지원관리원(원장 진우근)의 안내에 따라 핵심



시설인 △청년창업 보육센터 △입대형 스마트팜 △기술 실증단지 등을 시찰하고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다.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팜 조성시의 노하우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 현장 청년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한 스마트팜의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청년 농업인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극대화 기술에 주목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국정자원 화재 따른 민원업무 현장 점검

남원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전격적인 장애가 발생하자 지난달 30일 이백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일선 민원업무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정무2과,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기관 내부 업무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에 집중했다.

실제로 남원시는 전북자치도와 실시간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행정안전부 대응 지침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정확한 업무를 숙지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빠른 업무처리와 함께 장애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매진했다.

특히 시는 상황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난 29



일 긴급 부서장 및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전산 장애시 수기 접수체계 가동 △대체 절차 마련 △처리기한 연장 등 △소급적응 △민원안내 창구 강화 등을 즉시 시행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남원시 안순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모든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앞으로도 남원시는 주요 서비스 정상가동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 개최

남원시는 1일 이백면 척동마을에서 주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원 부스(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 △건강 부스(혈압·혈당 체크, 정신건강상담, 치매관리상담) △체험 부스(네일아트, 손마사지, 소방안전교육) △막걸리 부스(계란빵, 팝콘, 커피, 풍글레차 등) 4가지 분야에 1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0만원 봉사대가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점검·수리, 이동빨래방, 청소 등을 진행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협력방안 논의

남원소방서는 1일, 시 보건소와 남원의료원도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다수 사상자 대응방안을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상황, 중증 응급환자 전원 협조 체계 등을 공유하고, 남원시 보건소 신속 대응팀 대응체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 관계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승범 구급팀장은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구축·운영

남원시는 추석 연휴인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응급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기관 및 병·의원, 약국 101개소를 비상 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했으며, 관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남원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남원병원 7시 30분에서 22시까지 야간 진료실을 운영, 보건소는 5일부터 8일까지 진료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는 3일은 미래연합의원, 4일에는 미래연합의원·김진수소아청소년과의원·이소아청소년과의원, 7일은 남원시보건소, 7일부터 9일까지는 미래연합의원이 진료를 제공한다.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현황은 국번 없이 119, 남원시청 누리집과 보건소(620-7918)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안전한 추석 명절 만든다

3~9일 민생 안정 종합대책 추진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민원 해결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근무자 180여 명을 배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재해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

반, 의료방역대책반 7개 분야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지역 주민 비상 응급진료를 위해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하여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연휴 기간에 비상 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임실군 보건의료원(063-640-311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쓰레기 특별 수거 등 환경정비와 상하수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도 생계비 및 물품 지원과 함께 명절 음식 나눔으로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쌍치 파크골프장 개장

순창군 쌍치 파크골프장이 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설 조성에는 총 18억 4,300만 원이 투입됐으며, 18홀 규모 코스와 관리실, 스크린 골프장, 실내 연습장 등 체계적인 부대시설을 갖춰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파크골프장은 단순 운동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



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장식은 쌍치면 금령리 금정 체육

공원에서 진행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 손준석 군의회 의장과 의원, 쌍치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장식 후, 축사 순으로 진행된 행사 후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개장식에 이어 제1회 순창군수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돼 28개팀 35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 열띤 경쟁 속에서 기량을 뽐내며 축제의 장을 이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